

“이것이 헬기사격 탄흔” 손가락으로 눌러보며 탄식

국방부 5·18특조위 전일빌딩 현장 확인

“당시 총탄 다 치워버렸고
근무자들이 몇개씩 가져가”
“실무팀들 와서 조사하면
국과수 못지않게 할 수 있어”

공식 출범 후 13일 광주를 첫 방문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특조위) 위원들은 전일빌딩 10층 헬기 기총 소사 탄흔을 살펴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조위는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 현장 방문, 광주 5월 단체 면담 등을 진행했다.

안내를 받은 나익갑 광주시 5.18진상규명지원단 자원관이 “10층은 한번도 임대되지 않아 헬기 사격 흔적이 건물 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라며 “7~9층에도 탄흔이 있었지만 리모델링돼 모두 찾을 수 없게 됐다”고 말하자 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탄흔으로 쏠렸다.

처음에는 탄흔을 보존하기 위해 처놓은 출입통제선 밖에 머물던 위원들은 나 자원관의 의견에 따라 통제선 안쪽으로 들어가 탄흔을 자세히 살폈다. 이건리 위원장은 손가락으로 탄흔을 눌러보기도 하고, 천장을 살펴보기 위해 창틀까지 올라가는 등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는 전일빌딩에서 총격 사망자가 있는지, 10층보다 아래에서 쏜 것인지, 창틀 아래에 남아 있는 탄흔이 헬기 사격을 증명할 수 있



5·18 묘지 방문 13일 이건리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위원들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신경순 묘지관리소장의 안내에 따라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강희간 위원(예비역공군중장)과 신현복·신경재 육공군 지원단 위원들은 사다리 밟고 올라가서 천장을 살폈다.

이 위원장은 안중철 위원(5·18국정과정 실행추진위원장)에게 “천장 마감재 안에 탄흔이 남아 있지 않았던 거죠?”고 묻자 안 위원은 “네, 그게 문제죠. 당시 총탄을 다 쓸어서 치웠고 근무했던 직원들이 몇 개씩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라고 대

답했다.

이 위원장은 “가족 중에 헬기 조종사가 있어서 헬기 사격에 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며 “천장에서 탄흔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대로 범 질서가 지켜지던 시기가 아니어서 흔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전일빌딩 리모델링 상황에 대한 질문과 함께 향후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전일빌딩 헬기 사격으로 인한 사상자가

없었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위원들 사이에서는 “다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관련 진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10층을 다 둘러본 후 “탄흔이 없다고 사격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실무조사 팀을 다 데리고 와서 조사한다면 국과수 못지않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사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자료조사·증언·관계자 면담 모든 방법 동원해 진상규명”

이건리 국방부 5·18특조위원장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역할을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진상규명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자료, 증언, 관계자 면담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건리(54)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장은 1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10층에서 헬기 기총 소사 탄흔을 둘러본 후 비장한 표정으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은 엄청난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크다”며 “광우항쟁은 과거 역사지만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을 계기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마음을 더욱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5·18 당시 진압에 나선던 군인들이 진술해 줘야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7년이 지나면서 세월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다. 우리 미래 세대에 투명한 역사를 남겨주기 위해서는 진실을 왜곡·조작하고, 침묵해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나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특조위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5·18과 관련된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95년에 실시된 검찰 수사를 반문교사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과거 1995년 검찰수사와 1997년 재판



때 미흡했던 부분은 최고 책임자만 밝혀 역사적인 심판을 하기에 급급했던 점”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휘 계통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조위는 당시 미흡했던 부분들을 투명하게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의 공식 임무는 ‘헬기 사격 의혹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임매장지, 집단 발포명령자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정부와 국방부에 추가 조사를 건의하겠다”며 “정부와 국방부가 제한없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인 만큼 특조위는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투명하게 조사에 임할 방침이다”고 다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5·18 참상 온 몸으로 겪은 ‘금남로 1가 1번지’

헬기사격 조사 ‘전일빌딩’

지난달 5·18사적지 제28호로 지정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은 이번 주소가 ‘금남로 1가 1번지’로서, 광주를 대표하는 건물이다.

지난 1965년 지상 7층 규모로 1차 건물이 건립된 뒤 4차에 걸쳐 건물을 옆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신·증축했다. 금남로와 맞닿은 건물 전면이 3차 건물이고, 뒤편 왼쪽 부분이 1차 건물, 뒤편 오른쪽이 2차 건물, 2차와 3차 사이를 4차 건물로 부르고 있다.

특히 3차 건물 10층 내부와 2, 3차 건물 외벽에서 1980년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탄흔 총 245개가 발견돼 5·18 진상을 밝혀줄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뢰해 3차례에 걸쳐 이 건물에 대한 조사를 했다. 옛 전일방송 기자재실 등 10층 내부에서는 탄흔 177개가 발견됐으며 2, 3차 건물 외벽에서도 탄흔 16개가 확인됐다.

광주시는 최근 건물 매입을 확정하고 5·18기념공간을 비롯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한 장소로 꾸밀 계획이다. 5·18기념공간 조성 전담반(TF)을 구성해 탄흔 177개가 발견된 옛 전일방송 기자재실을 포함한 전일빌딩 10층 전체는 원형 보존하되 전시공간으로 꾸며 관광객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투명한 마감 소재를 활용해 탄흔 훼손을 막고 관람 편의를 도모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196) 갯벌

바야흐로 낙지 철인가 보다. ‘잡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아하는 친구가 갯벌 체험 다녀오는 길에 잡아보지 못한 낙지가 아쉬웠는지 시장에서 낙지를 사서 그중 스무 마리를 보내왔다.

살아 꿈틀대는 무안 빨낙지라 그런가. 낙지 탕탕이에 연포탕 등 무엇을 요리해도 후후룩 목 넘김이 아찔하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무안 빨낙지를 ‘한 번도 안 먹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고 만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귀하고 맛있는 음식에 인생의 작은 시름을 위로 받을 수

바다의 삶 호흡하고 갯벌을 파고드는 그림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남도 땅 갯벌을 회화의 대상으로 삼은 작가로는 박석규화백(목포대 명예교수 1938~)이 으뜸으로 꼽힐 것 같다. 이른바 ‘갯벌 화가’라 불리는 박석규의 작품 ‘남도 땅 갯벌에 서다’(2006년 작)는 갯벌에서 꼬막과 조개, 낙지 등을 잡고 있는 아낙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오체투지 하듯 갯벌에 온 몸을 맡기고 갯벌 깊숙이 어깨를 다 넣을 정도로 깊이 손을 뻗어 채취한 양식들을 빨배에 실어 나르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끝 간 데 없이 펼쳐진 갯벌 저 너머까지 원정 나가 먹거리를 캐는 데 몰두하는 여인의 모습이 송고하기까지 하다.

“입자 없는 바다의 눈발 갯벌은 자본

소유의 계급적 갈등이 필요 없는 곳여서 우리에게 평등의식과 진정한 노동의 즐거움을 심어주는 곳”이라 했던 미술평론가 원동석(1938~2017)은 화가의 1992년 개인전 도록 평문에서 “바다풍경을 인상주의나 자연주의 풍으로 그린 도시의 취미가 담긴 그림들은 술에게 나왔어도 진정으로 바다 삶이나 갯벌 삶을 호흡하면서 파고드는 그림은 우리미술사에서 최초의 일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함평 출신으로 오랫동안 자신을 키워온 드넓은 갯벌을 기억하고 있는 화가는 젊은 시절 민중미술운동을 통해 현실 비판적 세계를 격렬하게 보여주기도 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때부터 갯



박석규 작 ‘남도 땅 갯벌에 서다’

벌을 찾아 30여년 가까이 남도 갯벌 아낙의 부지런한 삶을 예술로 승화해오고 있는 화가는 지금도 오뉴월부터 시월까지는 벌교 갯벌을, 겨울에는 돌머리 해수욕장 인근 함평 갯벌을 찾아 스케치하지만 그 너머 갯벌이 훼손되어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광주비엔날레 광주플리마켓·미술사 박사>

